

“부부의 연 맺은 지 40년만에 면사포 썼습니다”

70세 박흥구씨 부부 등 10쌍 장애인·소외계층 합동 결혼식 광주시곰두리봉사회 등 주관

“삶에 치여 살다보니 결혼 40년만에 다시 부부로서 백년가약을 맺게 됐습니다.”

부부의 연은 맺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 10쌍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화촉을 밝혔다.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회장 박용수)가 주최하고 (사)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가 주관한 ‘제2회 아름다운동행 행복한 첫걸음 장애인 및 소외계층 합동결혼식’이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아트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지역 봉사단체들이 개인 사정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온 지역 소외계층과 장애인 가정을 선정해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수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장, 이정재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부부들의 혼인을 축하했다.



21일 열린 ‘제2회 아름다운동행 행복한 첫걸음 장애인 및 소외계층 합동결혼식’에서 소외계층 부부 10쌍이 혼인식을 올렸다.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 제공>

부부 10쌍은 전남대학교 학군단의 예도를 받으며 부부로서 새 발걸음을 시작했다.

주인공들 중 박행구(70·전화자(67·여)씨 부부는 유독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38년 전 부부로서 연을 맺었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 식을 올리지 못한 채 부부생활을 이어왔다.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이들 부부는 사연을

알게 된 광주시곰두리봉사회의 제안으로 40여년만에 식을 올리게 됐다.

두 사람은 이날 부부 행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부로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박행구 씨는 “저희와 같은 부부들이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곰두리봉사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축하를 받은만큼 지역 사회에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화자 씨는 “생활에 쫓겨 남들 다하는 결혼식도 잊

고 살아왔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정식으로 부부의 가약을 맺게 돼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합동결혼식을 주최·주관한 박용수(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 회장은 “합동결혼식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광주은행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사진 가운데)은 최근 광주은행 본점에서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산타 오셨네’ 행사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로,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역 내 청소년을 추천받아 선물을

전달할 아동을 선정했으며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약 2000만원 상당의 겨울 패딩 점퍼 100벌을 기부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작지만 의미있는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 취약계층에 온누리상품권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순환(주)은 21일 연말 연시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기탁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의 한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광주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불경기 위축된 이웃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탁된 상품권은 광주 지역 내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추운 겨울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따뜻함이 전해지면 좋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전달을 통해 상인분들과 소외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행정안전부의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된 ‘언제 어디서나 꼭 잡는다! 대표차’가 대통령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전남도 10억원·여수시 10억원)을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꼭 잡는다! 대표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표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류성호 KBS 기자, 44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당선

44대 광주전남기자협회장에 류성호(46·KBS·사진) 기자가 당선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21일 44대 협회장을 뽑는 후대전환 투표투표를 벌인 결과 기호 1번 류성호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류 당선인은 “기자로 일하기가 안팎으로 어려울 때, 그 속재를 알아주고 풀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회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 값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당선인은 ▲언론중재위원회 대응 자문변호인

단 구성 ▲취재 활동 안팎 어려움 돕는 ‘울타리 위원회’ 설립 ▲좋은 기획보도 공유·유통 강화 ▲주제·편집·사진·영상기자 등 전문연수 개설 ▲회원 맞춤형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류 당선인은 2005년부터 KBS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2010년 언론노조 KBS본부 지회장·2021년 KBS전국기자협회장을 지냈다. 43대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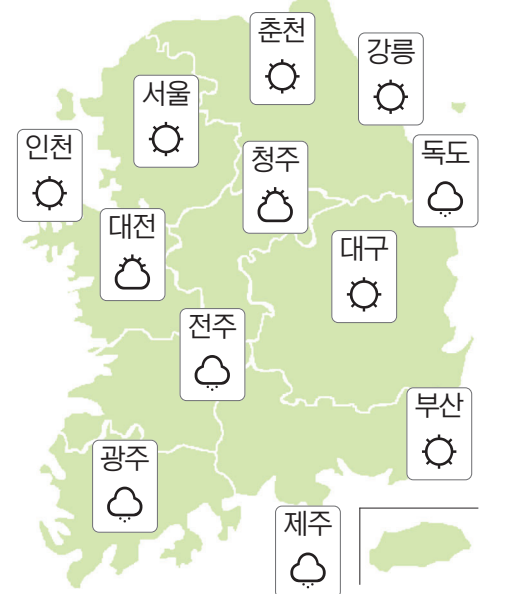
| | | | |
|-----|-------|-----|-------|
| 해돋이 | 07:37 | 달뜨기 | 13:50 |
| 해질 | 17:24 | 달지기 | 02:31 |

눈꽃 피는 날

밤까지 전남 서부권 중심으로 눈 오겠다. 예상 적설량 5~15cm.

| | | | | | |
|----|------|--------|-----|-------|--------|
| 광주 | 눈 | -8/3 | 보성 | 맑음 | -9/-1 |
| 목포 | 눈 | -7/-1 | 순천 | 맑음 | -8/0 |
| 여수 | 맑음 | -5/0 | 영광 | 눈 | -10/-4 |
| 나주 | 눈 | -9/-3 | 진도 | 한때 눈 | -5/0 |
| 완도 | 눈 | -5/1 | 전주 | 한때 눈 | -12/-4 |
| 구례 | 구름많음 | -12/-2 | 군산 | 눈 | -13/-4 |
| 강진 | 눈 | -8/-1 | 남원 | 구름많음 | -13/-4 |
| 해남 | 눈 | -8/-1 | 축산도 | 비또는 눈 | -2/2 |
| 장성 | 눈 | -12/-4 | | | |

◇전국 날씨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파고 (m) | 파고 (m) | 파고 (m) | 파고 (m) |
| 서해남부 | 앞바다 | 1.5~3.0 | 1.0~3.0 | | |
| | 면바다(북) | 2.0~4.0 | 1.5~3.5 | | |
| | 면바다(남) | 2.0~4.0 | 1.5~3.5 | | |
| 남해서부 | 앞바다 | 1.0~2.0 | 1.0~2.0 | | |
| | 면바다(서) | 2.0~4.0 | 2.0~4.0 | | |
| | 면바다(동) | 2.0~3.5 | 1.5~3.5 | | |

◇물때

| 목표 | 간조 | | 만조 | |
|----|---|--------------------------------------|-----------------------|-------|
| | 02:49 | 10:06 | 15:28 | 22:21 |
| 여수 | 11:12 <td>05:16 <td>23:44 <td>17:31 </td></td></td> | 05:16 <td>23:44 <td>17:31 </td></td> | 23:44 <td>17:31 </td> | 17:31 |

◇생활지수

| | | |
|----|------|------|
| 감기 | 심뇌혈관 | 미세먼지 |
| 주의 | 주의 | 좋음 |

◇주간 날씨

| 23(토) | 24(일) | 25(월) |
|-------|-------|-------|
| ☁ | ☁ | ☁ |
| -7/2 | -4/3 | -3/4 |
| 26(화) | 27(수) | 28(목) |
| ☀ | ☀ | ☀ |
| -2/7 | -1/7 | 0/8 |

생활 게시판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 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고도소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
|---|---|
| 子 | 36년생 성급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유지가 절실하다. 48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60년생 운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72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코다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4년생 현재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다. 96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2, 60 |
| 辰 | 37년생 영광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49년생 두 얼굴의 속성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질 것이나. 61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다면 오만의 소지가 크다. 73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놀랄 것이다. 85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50 |
| 巳 | 38년생 불변한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50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라. 62년생 자부심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74년생 인정을 개선하다 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86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98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3, 97 |
| 未 | 39년생 자신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흡족하겠다. 51년생 밤심한다면 상대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으니라. 63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75년생 상호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87년생 파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99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행운의 숫자 : 42, 67 |

12월 22일 (음 11월 10일 甲寅)

| | |
|---|---|
| 申 | 40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52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64년생 현재,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76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길상의 징후가 조용하고 있다. 00년생 근소한 차이가 전지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84 |
| 酉 | 41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53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65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77년생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곤을 날날이 살펴보자. 89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잖이 하마터로 깨닫게 된다. 01년생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다. 행운의 숫자 : 35, 69 |
| 戌 | 42년생 복 속 복에 조그만 화의 불씨가 숨어 있다. 54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맞이하겠다. 66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이 만사를 주도하리라. 78년생 서두르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자세가 필요하다. 90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02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망할지라. 행운의 숫자 : 26, 59 |
| 亥 | 43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55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67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79년생 한 발씩만 양보하면 만사가 해결되리라. 91년생 일시적인 현상과 빛깔이 현혹되지 말라. 03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일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행운의 숫자 : 37, 78 |

☎ 010-9790-8237

44년생 가랑잎에 불꽃이 일어나는 기세이다. 56년생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68년생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80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92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04년생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0, 85

45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57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69년생 열려질 만한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81년생 변항을 버리고 중음으로 삼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93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05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43, 64

34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46년생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라. 58년생 환경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70년생 상대적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82년생 밤잠시라도 가슴 속의 불꽃을 꺼내 보라. 94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87

35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47년생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리라. 59년생 주의한다 면 의외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71년생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의 원리 속에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83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95년생 앞서서 가면 역효과를 초래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53